

오피니언

데스크시각

김주정



공천 방식은 후보의 자질, 정책 캠페인 과 더불어 선거 승패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다. 공천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후보의 자질과 정책이 확연히 드러나고, '뭔가 달라질 수 있겠다'는 변화를 느낀 민심도 따라 움직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민주당 지도부가 이번 지방선거에서 도입하려고 하는 시민배심원제는 대중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다. 외부인이 포함된 200명의 시민배심원단이 민주당 광주시장 후보들의 자질·정책을 평가해 최종 후보를 선정하게 되면 호남에서부터 '바람'이 불어서 수도권에서도 승리할 것이라는 시나리오가 슬기롭게 한다. 조직·인력 동원 등 체육관 경선의 부작용을 피하고, 보다 나은 후보를 선택하는 것이라는 설명도 그렇듯하게 들린다.

광주가 승리 전인?

과연 그런가. 아니다. 최소한 민주당 광주시당 구성원의 대다수는 지도부의 이런

주장을 곧이 듣지 않는 듯하다.

왜 광주시당 공천에만 시민배심원제를 도입해야 하느냐가 첫 번째 의문이다. 여기에는 외부 인사들이 광주시당 공천을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게 맞느냐 따라 움직일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공천,民心은 없다

는 질문이 앞선다. 설사 배심원 구성을 공정하게 하더라도 광주시민의 민의를 제대로 반영한다는 보장이 있느냐는 근본적인 물음도 포함돼 있다. 소위 당심(黨心)과 민심(民心)의 일치 문제다.

광주시당 공천이 수도권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주장에도 의문을 표하는 이들이 많다. 지자체의 살림꾼을 뽑는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광주시당 후보가 누구나 수도권 표심을 자극할 것이라는 가정은 억지라는 이야기다.

오히려 "광주시당 후보는 우리가 결정한다"는 당 주류의 기득권 주장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이런 논란은 무엇보다 민주당이 도입하려고 하는 공천 기준이 일관성을 결여하고 있기 때문에 나온다.

현재까지 드러난 민주당의 공천 방식은 시민배심원제 도입과 국민참여경선 두 가지로 대별된다. 단체장의 경우 선거 공리가 필요한 전략지역은 시민배심원제로 공천하고 나머지 지역은 일반시민과 당원들이 50대 50으로 참여해 후보를 뽑자는 안이다. 한마디로, 지역 상황에 따라 경선 틀을 달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배심원제는 공정성과 투명성, 대표성을 어떻게 보장하느냐, 국민참여

문제가 돼 시끄러우면 수도권은 물론 지방선거 자체를 망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기득권 포기가 핵심

방법은 없는 것인가. 필자는 당이 기득권을 포기하고 공천권을 과감하게 지역민들에게 주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싶다.

사실 우리나라 정당 공천의 역사는 기득권 포기와 궤를 같이한다. 군부독재시대에는 공천동과 삼청동 안가에서 1인 절대자가 출마자를 낙점했다. 1987년 이후 3김 시대에는 DJ와 YS의 상도동·동교동 사자가 공천의 장(場)이었다. 2005년 광주가 노무현 돌풍의 진원지로 각광을 받았던 것도 국민참여경선으로 밀실에서 이뤄지던 공천이 유권자와 당원에게 주어졌던 덕분이었다.

공천 기득권을 버린 쪽이 선거에서 이겼다는 얘기가.

하지만, 2008년 총선 이후 이 같은 상황식 공천방식은 쇠락의 길을 걷고 있다. 한나라·민주 양당 모두 외부 인사 위주로 구성된 공천심사위에 권한을 위임했고,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이런 추세는 계속되고 있다.

판단은 유권자의 몫이다. 하지만, '공장의 열기'를 외면한 결과가 과연 공천 혁신으로 이어질 지 의문이다.

<정치부장> jnews@kwangju.co.kr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주소,전화번호를 써주세요.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은펜칼럼

이상욱



물안개가 자욱한 이른 아침부터 봄을 실어 나르는 가람비가 온 누리를 적시고 있다. 겨우내 심심찮게 내리던 눈도 어느덧 사라지고 매스게 돌아치던 바람도 슬며시 꼬리를 감추었다. 유난히 길고 추웠던 이번 겨울이 포근하게 내리는 봄비를 만나 작별의 인사를 나누고 있다. 또 앞에 보이는 오토나루의 앙상한 가지에 생기가 넘치기가 싫더니 드디어 파릇파릇한 새싹이 돋아나기 시작한다.

뒀안길로 멀어져 가는 찻쌀떡 장수의 처량한 외침과 북녘 하늘 멀리 날아가는 철새들의 이별 노래를 들으며 쓸쓸히 떠나가는 겨울을 배웅하자, 자, 그러면 빠꾸기의 청아한 울음소리가 멀리 퍼져나가고 봄기운이 가득한 드넓은 벌판으로 한번 나가보자.

봄비가 부풀어 오른 서릿발들을 조용히 잠재우면서 들녘의 겨울 자국을 말끔히 씻어내고 있다. 또한, 황량하던 들판에는 생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하늘만

봄이 오는 소리

기센 눈보라 속에서도 푸른 웃을 끈질기게 벗지 않은 소나무들도 이제는 짓누르던 눈덩이를 털어내고 참아왔던 한숨을 내쉬면서 다가오는 봄을 향해 미소를 짓는다. 그리고 골짜기를 덮고 있던 얼음이 봄을 부르는 빗줄기에 서둘러 녹아 내리고 겨울잠에서 막 깨어난 개구리들도 봄비를 맞으며 환호하고 있다.

갑자기 까치 두 마리가 허공을 휘저으며 봄이 온다고 까불어대고 이방 지방 창문을 활짝 열고 대청소를 시작하는 주부도 "소생의 계절이여 어서 오시오" 하면서 봄맞이 준비를 서두른다. 또 기나긴 겨울밤을 애꿎은 담뱃대만 만지작거리던 백발 할머니도 처마를 두드리는 봄비 오는 소리에 휘우뚱 일어나 다락 속에서 상추 씨 싹자 싹을 꺼내 호호 불며 마른 겹집을 날린다.

이제 참새 떼가 재잘거리는 대나무 숲에서 무겁게 덮고 있던 낙엽을 제치며 의연하게 솟아오르는 죽순과 또 오는 봄을 시새우는 꽃샘 추위에 또 씩씩하게 꽃망울을 터뜨리며 활짝 웃고 있는 매화를 만나러 가자. 그리고 추억의

처다보면서 수심이 가득하던 농부도 싱글빙글하며 기쁨을 감추지 못한다.

농부는 못내 갈망하던 비를 맞으면서 경운기에 거름을 가득 싣고 들로 나가며 이마에서 흘러내리는 비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저 즐거워 흥얼거린다. "내려라 봄비가 주룩주룩 내려라. 얼찌구나, 울해도 풍년이 되어라." 그러면서 아들놈보고 괜히 더 큰 소리친다. "이놈아! 삽도 한 자루 더 가져와라, 물고 다시 손보자." 봄갈이 시작하는 농기구도 덩달아 신이 난다. 새참 바구니를 머리 위에 얹고 서방님을 찾아 나서는 분이 얼마의 발걸음도 마냥 가벼운 것을 그 누가 어찌하랴. 쫄쫄래 뒤따르던 분이마저 봄비에 옷 젖는 꼴 모르고 그만 발뚱에 또끼고 앉아 속을 깨고 있다.

아! '계절의 여왕'이라는 봄이 정말 다시 오는가 보다. 세상 사람들이, 이제 지나간 꽃은일들은 모두 훌훌 털어 버리고 두 팔을 크게 벌려 새봄을 맞이하자. 그리고 봄과 더불어 희망찬 내일을 설계해 보자.

(수필가)

광주일보는 '오피니언'면 기고중 분기별 최우수작을 선정해 '은펜상'을 수여 합니다. 은펜칼럼은 이들 수상자들의 모임인 '은펜클럽' 회원들의 칼럼을 실는 코너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 이젠 추방되어야

얼마 전 뉴스에서 언짢은 내용을 들었다. 배뇨장애가 있는 여성이 직장 내 신체검사를 하러 병원에 갔는데 소변검사를 위해 400원 정도 하는 배뇨보조기구를 달라고 요청하자 보조기구가 없으니 집에 가서 소변을 받아오라며 거절했다는 내용이였다.

물론 병원에 보조기구가 준비 안 되었으니 그렇게 말할 수 있었겠지만 밝히기 꺼려하는 자신의 장애를 굳이 말하면서까지 보조기구를 요청했다면 당연한 병원에서 구입해서 제공해 줘야 옳지 않나?

이뿐 아니라 장애가 있는 사람은 보험 가입도 기피하고 보험에 가입하려면 종합검진을 받은 후 그 결과를 가져올 것을 요구하기도 한다. 장애인들이 이런 차별과 보이지 않는 수치성 유발을 당하며 사는 것은 우리가 아직도 정신적으로는 성숙이 달린 사회에 살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 장애인들 모두 내가 가족 형제라고 생각하되, 말 한마디와 행동 하나하나에 혹시 상처를 주지는 않는지 신중하게 생각하고 행동했으면 좋겠다.

▲이기태·광주시 광산구 울목동

기고

김한호



새 학기가 시작되면 학생들은 꿈에 부풀어 있다. 더욱이 삼급학교에 진학하는 신입생들은 기대를 갖고 새로운 학교에 입학한다. 자신들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행복한 학교이기를 기원하면서 말이다. 그런데 막상 학교에 가면 학교생활이 행복하기는커녕 임시지옥에 파묻혀 매일 책과 씨름을 한다. 치열한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특구나 적성을 무시한 채 공부만 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 학생들은 김연아처럼 자기 나름대로

것이다. 왜냐하면 스스로 실현 가능한 인생 목표를 설정하였는지도 문제이지만 그것을 실천하려는 의지와 노력에 따라 성공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꿈을 실현할 수 있을까? 그것은 학생들의 특기와 적성을 살려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보람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육을 해야 한다. 논어에 '아는 사람은 좋아하는 사람만 못하고, 좋아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

꿈이 익는 학교를 만들자

로의 꿈을 갖고 있다. 김연아는 어머니의 권유로 여섯 살 때부터 스케이트를 시작했다. 그녀는 동양적인 미모와 균형잡힌 몸매뿐만 아니라 천부적인 자질을 갖춘 선수였다. 게다가 스스로 피땀 어린 노력을 하였으며, 브라이언 오 코치를 비롯하여 주위의 도움으로 마침내 밴쿠버 동계올림픽 피겨 금메달을 비롯하여 사상 첫 피겨 그랜드슬램을 성취한 피겨 스케이트의 여왕의 꿈을 실현하였다.

이러한 좋은 예견과는 달리, 지난달 초 미국 뉴욕 카네기홀에서 107명의 미군 참전용사와 16개 참전국 주미대사들을 초청하여 공연을 한 가수 인순이가 또한 김연아 못지않은 인간 승리라고 할 수 있다. 그녀는 주한미군 아버지와 한 국인 어머니 사이에 태어난 혼혈아였다.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자랐다. 그녀는 불우한 자신의 처지를 인정하고 운명을 개척한 사람이다. 남과 다른 외모를 오히려 장점으로 생각하고 자신의 특기를 살려 훌륭한 가수가 되었다.

꿈의 실현! 이 말은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간절히 바라는 일이다. 그렇지만 과연 그 꿈을 실현한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을

만 못하다.'라고 했다. 그러므로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공부하고, 남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바른 인성을 길러주어야 한다.

'교육은 바람직한 행동의 변화'이다. 우리 학생들이 꿈을 갖고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학생 스스로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잘못된 행동을 고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영국의 찰스 다윈(1809~1882)은 『종의 기원』에서 '지금까지 생존하는 모든 생물의 종은 강하고 두뇌가 좋은 종이 아니라 변화에 잘 대처하는 종이다.'라고 했다. 우리 교육도 급변하는 미래사회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변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

앞으로 우리 학생들은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갈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학생들이 미래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창의적인 체험 활동을 시켜야 한다. 그리하여 학생 개인의 재능을 발굴하여 개성 있는 인재로 만들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교뿐만 아니라 학부모, 지역사회 등 학교공동체가 새롭게 변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학교교육을 한 차원 더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꿈과 비전이 있는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광양태금중 교장·문학박사)

늘어가는 성형외과, 만연하는 외모지상주의

고등학생들의 인생 목표, 어쩌면 그들이 인생의 전부라고 믿고 있는 대학 수능시험보다 훨씬 더 까다롭고 힘든 것이 기업 입사 과정이 아닐까 한다.

기업에 입사하기 위해 학벌이나 경력사항만을 갖추어야 하는 시대는 지나갔다. 이제 는 대인관계, 거주지역, 아버지 직업, 그리고 외모까지도 갖춰야 한다.

우리나라 여성인구 중 90% 이상의 여성들이 외모 콤플렉스가 있다는 조사결과를

본 적이 있다. 그들은 더 예뻐지려고 끊임없이 노력한다. 광주시내 변화가 발발마다 성형외과가 하나쯤은 자리 잡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땅값이 비싸다고 하는 시내 변화가 수많은 성형외과가 몰려 있는데도 간편의 수가 계속 늘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손실 수도 함께 늘어난다는 말이 아닌가.

정말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변화하는 것인가 자기가 궁금해한다.

▲문서희·광주시 광산구 송치동

시설

채권단, 금호산업 성급한 법정관리 안된다

금호산업의 운명이 풍전등화(風前燈火)에 처했다. 채권단이 대우건설의 재무적 투자자(FI)들에게 오는 5일까지 정상화 방안이 동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금호산업에 대해 법정관리에 돌입하겠다는 최후통첩을 했기 때문이다.

금호산업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정상화까지 10년 이상 장기간이 소요된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의 앞날마저도 장담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채권단은 금호산업이 법정관리라는 최악의 상황까지 가지 않도록 성급한 결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게 우리의 생각이다.

금호산업의 워크아웃이 차질을 빚고 있는 것은 대우건설의 재무적 투자자(FI)들이 정상화 방안이 동의를 제출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총 17개 FI 가운데 투자 규모가 가장 큰 미국계투자펀드인 오크트리와 국내 투자자인 미래에셋캐프사산운 등 2곳이 동의를 제출을 미루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통운과 대우건설의

지분 맞교환 등의 조건을 내세우며 버티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 채권단은 지분 맞교환 등의 방식은 채권은행들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는 문제인 만큼 투자자들의 요구를 더이상 수용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의 회생이 차질을 빚을 경우 지역경제는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금호타이어 근로자들은 지난해 12월부터 3개월치의 급여 등을 받지 못해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 또한 100여개의 협력업체는 이미 출도산의 어려움에 처해 있는 등 그 파장은 일과

채권단과 투자자들은 금호산업이 법정관리로 가는 최악의 상황만은 막아야 한다. 법정관리로 갈 경우 양측 모두 엄청난 손실을 입을 게 뻔하다. 특히 투자자들은 소탐대실(小貪大失)의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정부도 호남기업의 최후의 보루인 금호아시아나그룹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교원평가제 전면시행, 제도보완 뒤따라야

교원평가제가 어제부터 전국 모든 초·중·고교에서 전면 시행됐다. 교원평가제는 교사 평가에 동료 교사와 학부모, 학생을 참여시켜 공교육의 질을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잘하는 교사에게는 인센티브를 주고, 미흡한 교사에게는 의무 연수를 받도록 하는 장치도 마련했다.

그러나 교원평가제에 대한 지역 교육계의 반응은 환영과 우려로 엇갈리고 있다. 수업의 질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평가방식과 내용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무엇보다 평가기준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여전하다.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수업에 대한 열의', '과제의 양' 등을 묻는 평가내용이 주관적이고, 교사의 개인별 특성이 접목된 수업 내용을 단순 계량화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또 동료 교사 간 평가가 서로 봐주기 식으로 흐를 가능성도 높다. 학교간 과잉경

쟁에 따른 '점수 부풀리기'와 같은 부작용도 우려되는 대목이다.

실제로 지난해 교원평가제를 시범 운영한 광주지역 일부 학교에서는 학부모의 신분이 노출됐다는 주장이 나오는가 하면 일부 교사는 학생들에게 긍정적 평가를 요구하는 발언을 하는 등 각종 문제점이 나타나기도 했다.

교원을 공정하게 평가해 교육 경쟁력을 높여야겠다는 데 반대할 이유는 없다. 공교육을 업그레이드해 사교육비를 경감하기 위해서는 교원들의 자질 향상을 위한 평가가 필요하다. 교육의 질은 결국 교원의 실력이 좌우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교육 경쟁력 제고를 위해 무리하게 추진할 경우 교육현장의 분란만 불러올 수 있다. 시행이후 나타나는 문제점을 즉시 보완해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이와함께 교원평가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는 교사와 학부모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다.

無等鼓

겨울잠을 자던 동물들이 깨어난다는 경칩(驚蟄·6일)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다. 우리 선조들은 이맘때 보리의 생육상태를 보고 그 해 농사의 풍년 또는 흉년을 예측했다. 혹독한 겨울 추위를 잘 견뎌내고 보리 잎이 녹색 빛깔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영국의 찰스 다윈(1809~1882)은 『종의 기원』에서 '지금까지 생존하는 모든 생물의 종은 강하고 두뇌가 좋은 종이 아니라 변화에 잘 대처하는 종이다.'라고 했다. 우리 교육도 급변하는 미래사회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변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

앞으로 우리 학생들은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갈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학생들이 미래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창의적인 체험 활동을 시켜야 한다. 그리하여 학생 개인의 재능을 발굴하여 개성 있는 인재로 만들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교뿐만 아니라 학부모, 지역사회 등 학교공동체가 새롭게 변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학교교육을 한 차원 더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꿈과 비전이 있는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한해를 건강하게 보내기 위해 몸을 보하는 풍습이 전해 내려오고 있다. 날씨가 풀리기 시작하는 경칩은 집안 일을 하기에 적합한 시기다. 경칩때 흙일을 하면 땅이 없다고 하여 단박을 고치거나 흙벽을 발랐다.

뿐만 아니라 한해를 건강하게 보내기 위해 몸을 보하는 풍습이 전해 내려오고 있다. 날씨가 풀리기 시작하는 경칩은 집안 일을 하기에 적합한 시기다. 경칩때 흙일을 하면 땅이 없다고 하여 단박을 고치거나 흙벽을 발랐다.

경칩때부터 농촌은 한해 농사준비로 바빠진다. 보리와 밀, 시금치, 우엉 등

농작물들이 경칩을 전후해 생육이 활발해진다. 이때부터 눈을 갈고 과일밭을 가꾸는 등 본격적인 영농철로 접어든다. 농촌의 봄은 경칩과 함께 시작되는 셈이다.

김유정의 소설 '봄봄'에는 우직한 머슴 봉필이가 등장한다. 봉필이는 점순이에게 장가 가고 싶어서 삼촌께 세경한문 안받고 일한다. 그러나 욕심 많은

경칩(驚蟄)



예비 장인 배참봉은 점순이의 작은 키를 핑계로 봉필을 소처럼 부려먹기만 한다. 봉필이는 이 땅에서 농업을 업으로 살아가고 있는 농민들의 슬픈 자화상이기도 하다.

봉필이가 우직하게 농사를 계속하는 것처럼 농촌 늘녘도 봄이 되면 어김없이 분주해 진다. 씨뿌리는 수고가 없으면 결실의 가을에 거둘 것이 없듯, 경칩 때부터 부지런히 서두르고 씨 뿌려야 풍요로운 가을을 맞을 수 있다. 현재의 농촌상황이 어려움에 처해 있지만 꽃피는 봄이 다시 오듯이 농업이 귀한 대접을 받을 때가 오지 않을까? /고령성 사회2부장 ksgo@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柳濟浩		논설주간 申浩榮 편집국장 書庚完	
1952년 4월 20일 創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제1간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편집국내 (대표 FAX 222-4918)	사회 2부 2200-692 (F A X 227-0118)	경영지원국 2200-511 (F A X 222-8005)	문화홍보국 2200-541 (F A X 222-0195)
편집부 2200-672	문화생활부 2200-661	광고마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 A X 227-9500)
정치부 2200-634	어문재단부 2200-679	디자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F A X 02-773-9335)
경제부 2200-641	체육팀 2200-663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사회1부 2200-612	사 진 부 2200-691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F A X 222-4267)	조 사 부 2200-571		